BRITISH COUNCIL

Arts Council Korea

2015 한·영 무용 교류 프로그램 자료집

UK-Korea Dance Exchange Report 2015



목차

1. 머리말 3

2. 인사말 4

3. 댄스 토크 2015년 10월 14일

무용 창작의 생태계 — 안무가, 프로듀서 그리고 극장 5

① 엘리 비드햄 | 더 플레이스 6

② 파룩 초드리 | 아크람 칸 컴퍼니 10

4. 리서치 및 창작 워크숍 2015년 10월

제임스 커즌스 컴퍼니 15

① 셰익스피어 리워크드 16

② 제임스 커즌스 컴퍼니 17

③ 워크숍 & 리서치 18

④ 인터뷰 21

5. 안무가 교류 프로그램 2015년 11월–12월 23

① 빌리 코위: 예술적 상상과 기술의 접점 찾기 24

② 마크 브루: 비주류 경계를 허무는 장애인 무용 28

③ 아카쉬 오데드라: 전통과 현대의 만남 33

6. 후기 35

① 에바 마르티네즈 36

② 마크 브루 39

7. 크레딧 41

*

본 자료집에서 다루고 있는 기관, 극장 및 주요 장소와 축제들은 밑줄과 함께 연결된 링크를 통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1.
머리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주한영국문화원은 한국과 영국의 무용 교류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 10월부터 12월에 걸쳐 한·영 무용 교류 프로그램(UK-Korea Dance Exchange)을 진행했습니다.

한국과 영국 무용계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및 협력 모색을 목표로 무용 프로듀서와 3명과 안무가 4인을 초청하여, 이들과 국내의 무용 전문가와 안무가들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서로의 작품 세계뿐 아니라 양국의 무용 제작 현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댄스 토크를 통해 영국에서는 무용 공연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예술가들을 어떻게 돕는지, 무용단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영국 안무가들이 직접 워크숍을 진행하며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 무용 단체와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보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무용의 사례들을 살펴보았으며, 셰익스피어를 주제로 한국과 영국 양국이 공동으로 무용 작품을 제작하는 가능성 역시 탐색해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국의 안무가와 프로듀서들은 한국의 무용 관련 행사와 축제, 기관, 안무가, 무용가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과 영국의 무용 전문가들은 다양한 연결 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연결 고리들이 한국 안무가들의 영국 진출, 공동 창작 등 발전적인 협력의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본 책자가 그 첫 걸음을 위한 좋은 안내서가 되길 희망합니다.

2.
인사말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2012년도부터 시작된 한·영 교류 프로그램이 2015년 무용 교류 프로그램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용이라는 장르는 순수예술분야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순수한 장르입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음으로써 짧은 시간에 큰 교감을 나눌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3개월동안 다양하게 진행된 댄스토크, 워크숍과 리서치, 안무가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국 예술가들은 새로운 작업을 고민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 속에 서로의 무용을 알아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양국의 예술가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서로에 대한 고민이 점차 공동작업 및 다양한 국제 교류사업으로 풍성해지고 발전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무용 교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영국문화원과 한국을 방문한 안무가와 관계자분들들께 감사 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한·영 교류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2017년도에는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와 한·영 공동기금을 마련합니다. 양국 예술가들의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댄스 토크 2015년 10월 14일

무용 창작의 생태계 — 안무가, 프로듀서 그리고 극장

한-영 무용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영국 무용 제작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한국과 영국 무용계가 직면한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작품을 제작하는 프로듀서들의 경험을 듣고, 한국 무용계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과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2015년 10월 14일 오후 6시부터 약 두 시간 동안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더 플레이스 무용극장의 엘리 비드햄, 아크람 칸 컴퍼니의 파룩 초드리가 프로듀서로서 영국 무용계의 제작과 관련한 현황과 더불어 자신이 근무하는 극장과 무용단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제임스 커즌스는 아티스트의 입장에서 영국의 무용 제작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엘리 비드햄과 파룩 초드리의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제임스 커즌스의 발표는 제3장의 인터뷰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댄스 토크 2015년 10월 14일
무용 창작의 생태계 — 안무가, 프로듀서 그리고 극장

3–①
엘리 비드햄 Ellie Beedham
더 플레이스 The Place

극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무용 제작과 관객 개발



더 플레이스
www.theplace.org.uk

45년이 넘게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더 플레이스는 무용 훈련, 창작, 공연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이곳을 기반으로 하여 전일제로 운영하는 무용 학교, 공연장,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 프로그램, 국제적인 순회 공연을 펼치는 무용단이 활동 중이며, 무용가와 안무가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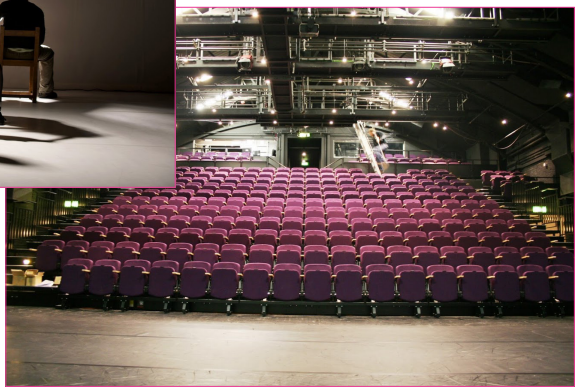
런던 컨템포러리 댄스 스쿨London Contemporary Dance School은 학부와 석사,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무용 기술을 가르치며, 매년 영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온 190여 명의 학생이 교육생으로 참여합니다. 더 플레이스는 센터 포 어드밴스드 트레이닝Centre for Advanced Training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만 11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 가운데 무용에 재능을 보이는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매년 70여 명의 학생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로빈 하워드 댄스 씨어터Robin Howard Dance Theatre는 매년 200회가 넘는 공연을 선보입니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독립 무용가들의 작품을 선보일 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적인 작품도 소개하며,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 무용 축제인 댄스 엄브렐라Dance Umbrella가 개최되는 주요 장소이기도 합니다. 유럽 여러 국가에 있는 무용 전용 공연장들의 네트워크인 EDN(European Dancehouse Network)의 회원이며, 영국 무용계의 '터너 상Turner Prize'라고도 불리는 안무 경연인 더 플레이스 프라이즈The Place Prize를 매년 진행합니다.

리처드 알스턴 댄스 컴퍼니Richard Alston Dance Company는 더 플레이스의 예술 감독인 리처드 알스턴이 이끄는 무용단으로, 더 플레이스에 상주하며 영국과 해외 순회 공연을 펼칩니다. 더 플레이스의 교육 프로그램과 별개로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과 단기 레지던시를 제공합니다.



Eva Recacha "Easy Rider"
Image by Chris Nash



무용 창작자, 관객, 공연장을 잇는 공간

더 플레이스는 무용수들과 프로듀서들이 광범위한 시각을 가지고 무용을 이해해나가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용을 한정된 형식 안에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힙합 음악에 맞춘 공연,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작품처럼 다양한 무용을 받아들입니다. 안무가와 무용수들이 예술적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객들에게는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며, 무대 위의 세계를 깊이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더 플레이스의 프로그램은 전세계를 무대로 생각합니다. 2010년에는 코리아-무브스Korea-Moves프로그램으로 LDP(Laboratory Dance Project)무용단에 속한 전미숙과 이인수의 작품을 상연했고, 전석 매진을 기록 했습니다. 또한, 극장 공간을 벗어나 주차장, 갤러리, 미술관, 공원, 지하철역 등 다양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더 플레이스는 공연을 소개할 뿐 아니라 안무가와 무용수들의 리서치 활동을 돕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 열리는 코레오드롬Choreodrome 프로그램은 30여 명의 무용가들과 협업자들이 2–3주 가량 극장에서 머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후 함께 아이디어를 시험해보고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더 플레이스는 어떤 작업과 활동을 후원할 지를 살펴보고,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작 시스템은 영국 무용계가 성장하는데 기여합니다. 또한, 더 워크 플레이스The Work Place라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무용가와 안무가 11명을 각자의 필요와 일정에 따라 지원하기도 합니다.

공연예술가로서, 현장에서 여러 도전에 직면합니다. 시장경제 속에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가운데, 어떻게 관객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확장시켜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그중 하나입니다. 더 플레이스는 이에 대한 해답을 미래에서 찾고자 합니다. 청소년과 어린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와 프로그램 역시 이러한 맥락 안에 있습니다. 이번 한 영 무용 교류를 통해 더 플레이스가 무용의 다양한 형식을 소개하고 무용가와 관객을 어떻게 육성하는지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엘리 비드햄 Ellie Beedham
현대 무용 센터인 라반Laban과 리릭 해머스미스Lyric Hammersmith의 수석 마케터 및 다수의 국제 무용 페스티벌의 프로그래머와 홍보직을 역임하였습니다. 2003년에는 스탠 원트 댄스Stan Won't Dance 컴퍼니를 직접 창단하고, 이후 총괄 프로듀서로서 다수의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2009년 런던의 무용 전용 극장 더 플레이스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았고, 이를 계기로 2010년에 더 플레이스의 프로듀서로 취임하였습니다.

발표 후 질문과 답변

Q.
프로듀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A.
영국에서는 프로듀서들이 자체 조직을 갖고 있거나 무용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프로듀서로 성장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조직에 들어가 멘토들에게 조언을 받거나 현장 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펀드레이징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A.
더 플레이스에는 기금과 모금을 전담하는 팀이 있어 대학, 극장, 교육, 다른 무용단 및 조직과의 교류에서 허브역할을 담당합니다. 자금이 필요한 분야에 따라 펀딩의 기회와 구조가 다릅니다. 정부와 민간의 후원을 받기도 하고, 무용단 티켓 판매로 수익을 내며 후원자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유료로 운영하며, 이를 통한 수익으로 운영합니다.





3.
댄스 토크 2015년 10월 14일
무용 창작의 생태계 — 안무가, 프로듀서 그리고 극장

3–②
파룩 초드리
Farooq Chaudhry
아크람 칸 컴퍼니
Akram Khan Company

무용 창작에서 프로듀서의 역할

아크람 칸 컴퍼니

www.akramkhancompany.net

1999년 7월, 파룩 초드리는 전문 무용가로 활동하다 은퇴한 후 예술 경영 석사 과정을 마치고 그로부터 1년 뒤, 아크람 칸과 파룩 초드리는 아크람 칸 컴퍼니를 설립하였습니다.

아크람 칸 컴퍼니는 간단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크고 과감하게 생각하며, 익숙하지 않은 것을 탐구하는 것. 그리고 타협을 피하며, 예술적 통합성을 지켜나가면서도 설득력과 의미가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무용단으로서 아크람 칸 컴퍼니의 미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과 관련한 주제의 작업들을 새롭고도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문화와 다른 분야를 받아들이고, 이들과 협력합니다. 아크람 칸 컴퍼니가 선보이는 모든 작품은 아크람 칸의 무용 언어와 스토리텔링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예술적인 성공, 상업적 성과와 더불어 국제적인 인지도를 구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작업에는 지적이고 과감한 새로운 아이디어와의 끊임없는 소통이 요구됩니다.

아크람 칸 컴퍼니는 국제적인 무용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2012년에는 한국에서도 공연된 바 있는 솔로 공연 데쉬DESH로 권위 있는 로렌스 올리비에 상Laurence Olivier Award을 수상했고, 런던 올림픽 개막식 프로그램 제작에도 참여했습니다. 현재 런던예술대학교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상주 무용단이며, 런던의 새들러스 웰스Sadler's Wells 극장, 프랑스의 MC2: 그르노블MC2: Grenoble 극장과 협약을 맺는 등 세계 유수의 공연 극장 및 무용 축제들과 활발하게 협력 중입니다.

지속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프로듀서로서 일을 시작한 초창기에 공연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기업들에게 수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답장을 한 통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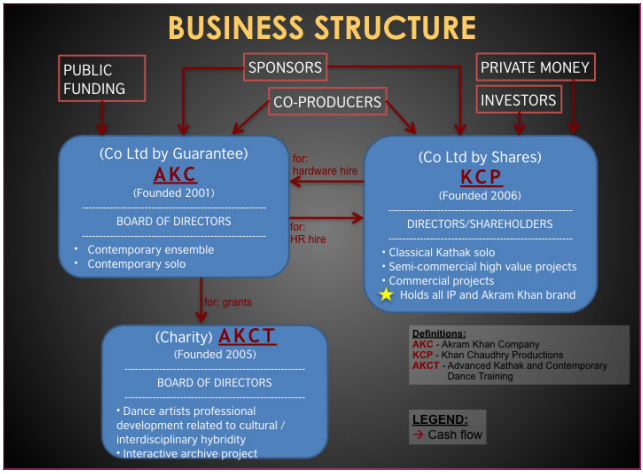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게임에 진 사람처럼 자신감 없는 말투로 도움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투와 태도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이미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당신에게도 좋은 결과를 안겨줄 것이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기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술 경영 석사과정을 이수하며 깨달은 점은, 예술 경영이 예술가의 성장을 도모하기 보다 경영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크람 칸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바로 무용의 미래라고 생각했고, 그의 작품 제작을 위해 당시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데뷔작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데뷔작이 성공한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예술가는 '생존'에 몰두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존이 아닌 '성장'에 주목했습니다.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무용단 운영에 관련하여 컨설팅을 받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대부분의 무용단이 비영리 단체로 정부 지원금과 재단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후원금을 받은 만큼 책임이 따르고, 후원자들의 입김에 시달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운영 모델에 관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비영리 단체 모델에서 벗어나 기업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익 창출만을 위한 기업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공지원자금과 민간영역에서의 후원, 투자자를 모두 받아들일 수 있어야 했고, 예술가들에게 지원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결과 두 개의 회사와 하나의 자선 기관으로 짜여진 구조를 세웠습니다. '아크람 칸 컴퍼니'는 보증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 '칸 초드리 프로덕션스'는



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d, '어드밴스드 카탁 앤드 컨템포러리 댄스 트레이닝'은 자선 기관charity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델을 만들게 된 것은 결국 지금 하는 일을 넘어서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아크람 칸 컴퍼니의 연간 평균 수익은 170만 파운드(한화 약 30억 원)을 넘었고, 총 매출에서 공공지원금의 비중은 16퍼센트를 넘지 않습니다. 또한 수익의 72퍼센트가 해외공연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통계는 예술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예술단체는 스스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혼동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리해보면 의외로 복잡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예술 경영에 참여하는 이들은 자신이 리더인지 행정가인지 매니저인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운영에 있어서 매니저의 기능은 중요하지만, 성장은 리더십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곧 다가오는 프로젝트와 당장에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이야기하고 동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용단의 성장은 그러한 리더만이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듀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트렌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혼을 존중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을 모으는 것입니다. 저는 비즈니스 모델을 대나무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대나무는 굉장히 잘 자라고 유연해서 바람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대나무가 강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이 비어있어 변화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파룩 초드리 Farooq Chaudhry

파룩 초드리는 1990년대까지 국제적 무용가로 유수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통해 1988년 아시아 공로상Asian Achievement Award을 수상하였고, 1999년 이후 무용가로서의 활동을 멈추고 은퇴하였습니다. 이후 런던 시티 대학교City University에서 예술 경영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2000년에 아크람 칸과 함께 아크람 칸 컴퍼니를 창립했습니다. 2014년에는 드몽포트 대학교De Montfort University로부터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초드리는 영국 정부의 'GREAT' 캠페인 문화 체육 자문위원회, 클로어 리더십 프로그램Clore Leadership Programme 전략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영국 사회적 기업가학교School for Social Entrepreneurs 참관인으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가 선정한 세계적 문화 사업가 1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고, 런던 비즈니스 스쿨 경영 대학원과 홍콩 대학교 고급 문화 지도자 양성 과정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무용단을 이끄는 프로듀서로서 파룩 초드리는 아크람 칸이 자신의 예술적 포부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어 냈습니다.

발표 후 질문과 답변

Q.

아크람 칸의 성공을 확신한 이유가 있었는지, 성공의 전환점이나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A.

아크람 칸의 성공을 확신한 것에 대한 뚜렷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떤 업계에 종사하려면 그 분야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술 경영을 전공한 사람들은 작품을 많이 보러 다니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작품을 많이 봐야 업계를 더 잘 알 수 있고, 더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직감 또한 업계를 잘 알아야 생기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위험한 단어입니다. 실패는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게 하고, 성공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만듭니다. 프로젝트의 진행과 결과를 성공과 실패의 잣대로 보기보다는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성장하고 발전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품은 관객의 판단에 내맡겨집니다. 굳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작품은 끊임없이 관객에게 비평을 받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조언만을 선택해서 스스로의 성장을 돕는 것이 낫습니다.

성공의 전환점이나 계기를 묻는 질문은 마치 여러 명의 자식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지를 묻는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꼽자면 가장 처음에 했던 작품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4.

리서치 및 창작 워크숍 2015년 10월

제임스 커즌스 컴퍼니

한·영 무용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무용계의 장기적인 협력과 교류의 기반을 다지는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하나로, 영국문화원이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셰익스피어 리워크드Shakespeare Reworked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제임스 커즌스 컴퍼니의 안무가와 프로듀서가 한국을 방문해 창작 워크숍과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한 리서치와 창작워크숍은 이후 만들어질 새로운 작품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4.
프로덕션 워크숍 & 리서치 2015년 10월
제임스 커즌스 컴퍼니

4–①
셰익스피어 리워크드

셰익스피어 리워크드

http://theatreanddance.britishcouncil.org/projects/2015/shake-speare-reworked/

'셰익스피어 리워크드'는 2016년에 400주년을 맞이하는 셰익스피어 서거를 기념하기 위해 영국문화원 본부가 2015년에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영국에서 활동하는 공연예술가와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해외 국가의 예술가, 단체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예술가와 단체들은 2015년 중 작품을 위한 연구조사와 현지 방문을 진행했고,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경우 협력 관계에 있는 방문국 현지와 영국에서 2016년 중에 공연을 선보입니다.

제임스 커즌스 컴퍼니는 더 플레이스의 추천으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협업 국가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가운데 '뜻대로 하세요As You Like It'를 무용 작품으로 재해석할 예정이며, 셰익스피어 작품에 등장하는 마법의 숲을 서울의 '네온사인 숲'으로 상상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진행한 리서치와 워크숍은 원작의 주제를 동시대 한국 사회 맥락에 맞게 해석하고, 이를 한국에서 활동하는 무용가,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작품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임스 커즌스 컴퍼니James Cousins Company

www.jamescousinscompany.com

제임스 커즌스는 앞서 소개한 더 플레이스가 운영하는 런던 컨템포러리 댄스 스쿨 출신의 무용가이자 안무가로, 현재 영국을 대표하는 젊은 안무가로 활동 중입니다. 2010년 런던 컨템포러리 댄스 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한 뒤 로버트 코핸 어워드Robert Cohan Award를 받았고, 2011년에는 매튜 본Matthew Bourne이 만든 뉴 어드벤쳐스 어워드New Adventures Award를 받으며 본격적으로 안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커즌스는 더 플레이스에서 운영하는 신인 안무가 쇼케이스 프로그램인 레졸루션 시즌Resolution Season을 통해서 안무가로서 첫 번째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이듬해 코레오그래픽 어워드 Choreographic Award를 수상했고, 새들러스 웰스 극장Sadler's Wells Theater에서 정식으로 작품을 선보이며 공식적으로 데뷔했습니다.

꾸준히 활동한 결과, 2013년에는 영국문화원이 후원하는 에딘버러 쇼케이스에서 20분 길이의 듀엣 작품을 발표할 기회를 얻었고, 이후 작품 투어를 위해 무용단까지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프로듀서인 프란체스카 모즐리Francesca Moseley와 공동으로 무용단을 운영 중이며, 대표적인 작업으로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노르웨이의 숲Norweigian Wood'을 무용으로 재해석한 'Without Stars/There We Have Been'이 있습니다.

4.
프로덕션 워크숍 & 리서치 2015년 10월
제임스 커즌스 컴퍼니

4–③
워크숍 & 리서치

제임스 커즌스는 한·영 무용 교류 프로그램과 '셰익스피어 리워크드'의 일환으로 2015년 10월 7, 8, 12, 13일에 걸쳐 4일간 한국 무용가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약 2주에 걸쳐 공연예술 전문가들과 함께 작품 제작을 위한 리서치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주제나 키워드는 워크숍으로 유기적으로 이어졌고, 워크숍에서 착안된 내용은 다시 리서치에 반영되었습니다.

무용가들과 진행한 워크숍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등장하는 장소와 개념들을 바탕으로 한국 무용가들과 안무를 실험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원작에서 대립적 공간과 시간으로 등장하는 도시와 숲, 낮과 밤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한국의 무용가들과 함께, 몸이 기억하는 것과 인식하는 바를 움직임으로 나타내는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대에 올릴 작품 안무를 위한 아이디어를 축적함과 더불어 서로간의 소통을 확장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에도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리서치는 제임스 커즌스가 안무가로서 셰익스피어의 원작에서 주목한 요소들을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기 위한 사전 준비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리서치에서 초점을 맞춘 주제는 꽃미남과 가부장적



4.
프로덕션 워크숍 & 리서치 2015년 10월
제임스 커즌스 컴퍼니

4–③
워크숍 & 리서치

문화, 병역제도, 서울의 밤 문화 등 일견 셰익스피어와 거리가 먼 듯 보이지만 원작 '뜻대로 하세요'를 동시대 사회의 여러 모습과 한국적 맥락을 바탕으로 재해석하는데 바탕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용 창작 워크숍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찾기보다는 리서치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작품 창작에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을 포착하는 데 더 주목했습니다.

더 나아가, 리서치는 서울 현지의 예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한영국문화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뿐 아니라 서울의 예술가들에게 도움을 받아 서울의 여러 공간을 직접 방문하거나 리서치와 관련한 주제를 살펴볼 수 있는 공연을 함께 관람하고 토론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으로 도출된 내용은 워크숍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리서치 과정에서 한국 젊은이들의 결혼관을 토론하며 '밀당 관계', '썸 탄다' 등의 단어와 표현을 도출했고, 이를 워크숍의 안무 만들기 과정에서 활용했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한국 측 무용수들은 타 장르의 원작을 무용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에 참여하며 새로운 안무 방법론을 경험하는 기회를 누릴 수 있었고, 제임스 커즌스는 한국 현대 무용의 단면을 살피면서 향후 작업을 무대에 올리는 데 필요한 실질적 사안들을 점검해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상과





4.
프로덕션 워크숍 & 리서치 2015년 10월
제임스 커즌스 컴퍼니

4–③
워크숍 & 리서치

무대를 위해 초청받은 한국의 시각예술가들 또한 워크숍과 리서치를 참관하며 제작 과정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제임스 커즌스가 무용으로 재창작한 셰익스피어의 '뜻대로 하세요As You Like It'은 추가적인 리서치와 준비 과정을 거쳐 2016년 중 정식 공연으로 한국과 영국에서 소개될 예정입니다.







*

주한영국문화원은 제임스 커즌스의 리서치를 위해 극작가이자 연출가, 평론가로 활동 중인 정진세를 드라마터그로 초청했습니다. 또한, 무용 분야 기자로 활동하는 양은혜와 공연예술 출판사 '1˚C' 대표 허영균이 드라마터그팀으로 리서치 과정에 함께 했습니다.

4.
프로덕션 워크숍 & 리서치 2015년 10월
제임스 커즌스 컴퍼니

4–④
인터뷰
영국의 무용 제작 현황

Q.
영국에서는 안무가로 커리어를 쌓아가기 위해 어떠한 기반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A.
영국은 안무가로서 커리어를 쌓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가 제공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작 지원을 비롯해서 창작과 공연활동으로 관객을 만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무용수들의 경우, 램버트 컨템포러리 댄스 컴퍼니Rambert Contemporary Dance Company, 호페쉬 쉑터Hofesh Shechter 등의 무용단에 소속되어 있다면 자신의 활동을 선보일 수 있는 자체적인 플랫폼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속 무용단이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영국 전역에 있는 무용 센터를 통해 워크숍이나 제작 지원 등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품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존재합니다.

Q.
안무가나 무용가로 경력을 쌓아나가면서 누릴 수 있는 기회에도 변화가 생기나요?

A.
활동을 하면서 인지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무용 센터에서 공연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연장이나 무용단에 직접 소속되지 않고 활동하는 협력 아티스트로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 기금으로 운영되는 댄스 센터의 경우, 연습실을 대부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 이런 기회를 활용해 저와 다른 배경과 경력을 지닌 예술가들을 만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었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Q.
제임스 커즌스 컴퍼니라는 무용단을 이끌고 있지만, 프로듀서인 프란체스카 모즐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프로듀서와의 공동 작업을 통해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A.
신생 무용단을 이끄는 안무가들은 불안정한 활동을 펼치는 대신 더 큰 무용단에

들어가 풀 타임으로 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연출가, 안무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연습실 안에서만 머무르며 제가 잘 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용단을 이끌게 되면서 창조를 위한 활동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로듀서와 함께 작업하게 되면서 춤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고, 장기적으로 안무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장의 문제에만 연연하지 않고 그 너머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안무가에게 있어 프로듀서란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작품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해줄 사람입니다. 처음 프로듀서와 함께 일을 시작했을 때는 마치 제 아이를 남에게 맡기는 것 같았지만, 점차 신뢰를 갖고 맡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
안무가와 무용가들에게 지원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제작을 위한 도움은 어떻게 찾나요?

A.
작업이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제 경우는 공공 기금에 많은 부분을 의존했었지만, 공공 기금으로만 작업을 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졌고 다른 출구를 찾게 되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민간의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원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지금은 타 장르의 예술가들과 많은 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연을 선보일 수 있는 다양한 장소, 서로 다른 장르간에 교류가 많아지면서 공연의 폭 또한 다양하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난 창작 방식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창작 방식이 다양해지는 만큼, 제작을 위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본 인터뷰는 “댄스 토크: 무용 창작의 생태계 - 안무가, 프로듀서 그리고 극장” 에서 진행한 제임스 커즌스의 발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5.
안무가 교류 프로그램 2015년 11월–12월

영국 무용계에서 활동하는 제작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던 '댄스 토크'와 실제 작품 제작으로 이어질 제임스 커즌스의 워크숍에 이어, 11월과 12월 두 달에 걸쳐 영국의 안무가들이 한국을 방문해 워크숍을 진행하고 한국 무용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에 걸쳐 진행된 안무가 교류 프로그램은 무용 안무와 제작에 있어 보다 새로운 방법론을 소개하고, 앞으로 이어질 교류와 제작 기회를 위한 장을 마련했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무용 제작을 해 온 빌리 코위Billy Cowie, 신체적 장애를 극복한 안무가 마크 브루Marc Brew, 전통 무용과 현대무용의 융합을 시도하는 아카쉬 오데드라Aakash Odedra가 서울을 방문해 직접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무용가와 안무가들이 워크숍에 참여해 영국 안무가들과 실제로 무용을 연습하고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5.
안무가 교류 프로그램 2015년 11월–12월

워크숍
빌리 코위 2015년 11월 26–27일

빌리 코위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안무가로, 작곡가, 댄스 필름 제작자이자 퍼포먼스 아티스트로도 활동 중입니다. 빌리 코위의 퍼포먼스는 3D 입체영상과 설치 미술, 무용 안무, 음악이 어우러지는 특유의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안무가로서의 활동 초기에는 25년 간 다양한 무용단의 안무가로 활동했고, ‹Motion Control›(2002), ‹Anarchic Variation›(2002), ‹Beethoven in Love›(1994) 등의 댄스 필름을 제작해 평단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융합 퍼포먼스 및 영상 제작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빌리 코위가 작품 기획에서 중점을 두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객들이 무용수들과 안무 그 자체를 직접적이면서 친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일반적인 극장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무용 관객들의 저변을 확대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공연되고 상영될 수 있는 작품들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용과 기술이 융합되는 지점의 한계를 탐구하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워크숍은 2015년 11월 26, 27일 양일간 포이어 프로덕션이 제공한 ‘두리춤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3D 영상을 활용한 무용 작품이 다소 생소한 참여자들을 위해, 빌리 코위는 본인이 안무한 작품을 참여자들과 함께 감상하는 것으로부터 워크숍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참여자들이 직접 빌리 코위의 안무에 맞추어 기존 작품에 참여해보았고, 실제로 안무를 함께 만들어보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빌리 코위는 워크숍을 통해 참여자들이 아이디어를 얻도록 서로 도움을 주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입체 영상을 활용하기 때문에 무용보다는 기술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비해, 빌리 코위의 워크숍은 무용과 안무에 집중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빌리 코위는 참여자들의 움직임을 녹화하고 인터뷰를 진행한 첫째 날의 영상을 둘째 날의 안무 창작에 재료로 활용하며 무용과 영상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빌리 코위의 창작 활동은 다음 웹사이트를 통해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www.billycowie.com

5.
안무가 교류 프로그램 2015년 11월–12월

워크숍
빌리 코위 2015년 11월 26–27일







5.
안무가 교류 프로그램 2015년 11월–12월
인터뷰

워크숍
빌리 코위 2015년 11월 26–27일

Q.
무용을 전공했나요? 안무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A.
에딘버러 대학University of Edinburgh에서 음악을 전공했어요. 그 후 밀라노와 벨기에에서 작곡 활동을 했었고, 안무는 1990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튼 대학University of Brighton 의 예술대학에서 무용, 음악, 연극, 시각예술을 가르쳤고요.

음악을 연구하면서 무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의 구조나 리듬이 춤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이었지요. 무용수들은 오랜 시간 신체훈련을 받지만 저는 음악을 통해 무용에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무용수들이 움직임을 만들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방식을 이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 안무 작업을 선보인 곳은 와이드 위글러스 컴퍼니Wide Wigglers Company와 디바스 댄스 씨어터Divas Dance Theater입니다.

Q.
3D 댄스 필름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한국에 소개되어 알려진 3D 무용필름으로는 빔 벤더스Wim Wenders감독의 ‹피나Pina›(2011)가 있습니다.

A.
10년 정도 됐습니다. 요즘은 헐리우드에서도 영화를 처음부터 3D로 만들기도 합니다. 빔 벤더스가 만든 ‹피나›와 저의 3D 댄스 필름의 차이점은 영상에 등장하는 무용수가 영상에만 머무르고 있는지, 극장 안으로 들어오는지에 있습니다. 제가 만든 작품들은 3D안경을 착용하고 관람할 때 실제로 무용수가 관객과 같은 공간에서 움직인다는 느낌을 줍니다. 어린이들도 좋아하지요.

5.
안무가 교류 프로그램[2015년 11월–12월]
인터뷰

워크숍
빌리 코위[2015년 11월 26–27일]

Q.
모든 댄스 필름의 배경에서, 그리고 무용수의 신체 위로 드로잉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3D필름을 상영할 때 화면 앞에 실제 무용수를 두고 무엇이 실제이고 허구인지 비교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때 프로젝터를 통해 영사되는 드로잉과 무용수의 그림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작품에 쓰이는 드로잉은 독일 미술가 실케 맨스홀트Silke Mansholt의 작업으로, 6년째 협업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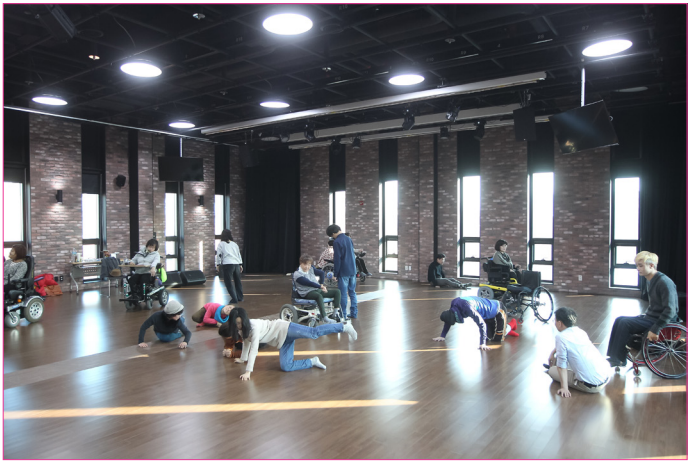


5.
안무가 교류 프로그램 2015년 11월–12월

워크숍
마크 브루 2015년 11월 24–25일

마크 브루는 2001년부터 자신의 이름을 딴 무용단 마크 브루 컴퍼니Marc Brew Company를 이끌고 있는 안무가입니다. 호주 출신으로 발레를 전공했고, 오스트레일리아 발레단,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립 극장 발레단, 뉴욕 인피니티 댄스 시어터 Infinity Dance Theatre 등 세계 유수의 무용단들과 함께 작업하였습니다. 장애를 가진 무용수들과 비장애인 무용수들이 함께 활동하는 캔두코 댄스 컴퍼니 Candoco Dance Company에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활동했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폐막식 깃발 전달식과 장애인 올림픽 폐막식에서 객원 무용가, 공동 연출 및 미디어 대변인으로 일했습니다. 2009년에는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잘 알려진 현대무용단인 스코틀랜드 댄스 시어터의 협력연출가로도 활동하였습니다.

마크 브루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안무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연출하는 공연은 공연에 참여하는 무용수와 이를 바라보는 관객들이 지니고 있는 무용에 대한 기대감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번 무용 교류 프로그램은 마크 브루가 진행한 워크숍을 비롯해 안무가 노경애와 공동으로 진행한 워크숍, 워크숍의 결과를 공유하는 '셰어링 세션Sharing Session'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 11월 24, 25일 양일간 이루어진 마크 브루의 워크숍은 WCO(월드컬쳐오픈)의 후원으로 W스테이지 서소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노경애 안무가와 진행한 공동 워크숍은 11월 27일에 대학로에 있는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5.
안무가 교류 프로그램 2015년 11월–12월

워크숍
마크 브루 2015년 11월 24–25일









5.
안무가 교류 프로그램 2015년 11월–12월
셰어링 세션 11월 25일

워크숍
마크 브루 2015년 11월 24–25일

장애를 가졌을 때와 가지지 않았을 때를 모두 경험했다는 것이 제 장점입니다. 덕분에 장애에 한계를 두지 않으며, 가능성에 보다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작업하는 무용수들에게 음악, 묘사, 이미지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용수와 작업을 하든 도전을 장려하고, 동시에 제가 예술가로서 도움 받는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워크숍 둘째 날, 워크숍의 내용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과 함께 작업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셰어링 세션이 이루어졌습니다. 마크 브루가 만든 댄스 필름 상영 이후 작업에 관한 대화가 진행되었고, 워크숍 참여자들과 함께 작업한 그룹 안무를 시연하였습니다.

Q.
한국에서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활동, 특히 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장애인 예술가 활동 상황, 무용단체들의 교류와 협업이 궁금합니다.

A.
영국에서는 다양한 장애인 예술가 및 예술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그룹도 여럿 있고, 무용단 역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저 또한 2008년까지 무용단에 소속되어 활동하면서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장애인 무용수들이 많습니다.

Q.
장애인 예술가들의 활동이 처음부터 활발히 이뤄지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애인 예술가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었고, 어떻게 후원과 연결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영국에서는 오랫동안 각종 기관을 통해 정부의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예술가들이 함께 작업을 하게 되면서, 장애인 예술가들도 지원금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술의 다양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언리미티드Unlimited'와 같은 단체에서 예술의 다양성과 장애인 예술가들의 활동을 장려하는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예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세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한가지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예술도 이를 꼭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Q.
본인의 작업에서 무용수들의 가능성,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무용수들에게 적용한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A.
이번 워크숍처럼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때는, 처음부터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펼쳐나가기 위한

과제들을 정하고서 안무 소재를 만들어 갑니다. 무용수들이 소재를 만들어 내고 안무를 짜면 제가 개입해서 익숙하지 않고 살짝 불편한 것들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도전을 유도합니다. 또한 기존의 안무를 제시하여 무용수들이 이를 본인에게 맞게 소화하는지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Q.
안무를 할 때 통증을 어떻게 극복하나요?

A.
고통의 종류와 정도를 유심히 살피고, 이를 통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봅니다. 통증을 피해 움직일 수 있도록 안무를 바꾸거나 의자나 파트너, 바닥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작업에 참여할 때에는 무용수로서 스스로의 몸과 장애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깨가 아프기 때문에 제 어깨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5.
안무가 교류 프로그램 2015년 11월–12월

워크숍
아카쉬 오데드라 2015년 12월 15-16일

아카쉬 오데드라는 영국 버밍엄 출신으로, 인도의 전통 고전 무용 양식인 카타크와 바라트 나트얌을 전수받았습니다. 2009년 아크람 칸이 총괄하여 새들러스 웰스 극장에서 열린 무용 페스티벌에서 솔로 작품 '마아티 레Maati Re'를 선보였고, 이후 아크람 칸으로부터 개인적인 지도를 받으며 현대무용 안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2011년에는 본인의 이름을 딴 아카쉬 오데드라 컴퍼니Aakash Odedra Company를 창단하고 데뷔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제임스 브라운의 공연,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즉위 60주년 기념식 축하 행사, 런던 문화 올림피아드 폐막식 등 다양한 공연과 행사의 안무 연출을 맡았고, 자국인 영국과 해외의 다양한 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카쉬의 안무는 인도 전통 무용과 현대 무용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결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전통 무용을 이국적인 요소로써 현대 무용에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술가들과 협업을 펼치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술적 출발점으로 삼는 것을 뜻합니다. 2015년 12월 15, 16일 양일간 국립현대무용단에서 이루어진 워크숍은 이러한 방법론을 안무 워크숍을 통해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워크숍의 내용은 인도의 전통 무용인 카타크를 바탕으로 현대 무용을 위한 안무를 창작하는 자신의 방법론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오전에는 아카쉬 오데드라가 직접 이끄는 신체 훈련을, 오후에는 카타크 춤을 바탕으로 하는 현대 무용 안무 워크숍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전통 무용을 고정된 대상으로써 박제화 하는 것이 아닌 동시대 무용 안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론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살펴보고 연습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5.
안무가 교류 프로그램 2015년 11월–12월

워크숍
아카쉬 오데드라 2015년 12월 15-16일









6.
후기

무용 교류 프로그램은 한국의 무용계 종사자들에게 영국 무용계를 소개하는 자리일 뿐 아니라 영국에 한국을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두 편의 글은 이번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찾은 새들러스 웰스 극장의 프로듀서 에바 마르티네즈Eva Martinez와 무용 워크숍을 진행한 마크 브루가 한국 무용계를 방문한 경험에 관해 쓴 후기입니다.

6–①
에바 마르티네즈
서울 무용계 관찰기[2015년 12월]

한·영 무용 교류 프로그램으로 서울을 방문하다

꽉 찬 일정을 준비해준 주한영국문화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도움으로, 새들러스 웰스의 프로그래머라는 직함을 달고 5일 동안 25명이 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모두들 점심 식사 시간엔 일을 멈춥니다. 마치 러시아워 시간 같았습니다.)

제가 서울을 찾은 목적은 한국과 영국 두 나라의 무용계를 더욱 잘 알기 위함과 더불어 2017년 양국에서 여러 문화 행사가 함께 개최되는데 대비하여 필요한 연결점과 공동의 관심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전통적인 형태의 춤이 강력한 존재감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춤이라는 매체를 새롭고도 동시대적인 형태로 작업하기 위해 예술가들이 취하는 결심과 용기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에는 연극과 무용 공연을 위한 공연장이 풍부하고, 이들 중 많은 곳들이 보다 새로운 공연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동시대적 사고를 지닌 LG아트센터와 같은 곳에서는 이미 아크람 칸이나 매튜 본Matthew Bourne과 같은 영국 예술가들이 공연을 펼쳤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여러 공연 프로모터들이 무용 관객들을 더 발굴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지요. 무용 안무가 극장의 벽을 넘어 미술관과 갤러리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제게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일하는 큐레이터나 미술가들과 만나는 것 또한 중요했습니다. 김선정 큐레이터(아트선재센터)를 만나 정치적인 주제로 이루어진 큐레이팅 작업에 관해 이야기를 듣고, 아시아에서 선구적인 큐레이터로 활동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영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비록 길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짧은 시간 동안 런던에서도 아방가르드로 여겨지는 예술 활동과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르코 예술극장의 공연이나 국립현대미술관의 남아프리카 미술가 윌리엄 켄트리지William Kentridge의 전시 등 제가 가는 모든 곳마다 관객이 많았습니다. 방문했던 곳 중 일부는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무용센터는 여전히 새로 칠한 페인트 냄새가 났고, 바닥은 막 새로 깐 듯 보였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예술가들이 자신의 삶에서 느끼는 긴장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특히 젠더정치나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같은 주제에 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풍부한 감성과 지성을 지닌 젊은 여성 안무가인 김보라의 작업에서 이런 점을 잘 살펴볼 수 있었고, 지난 여름 베를린에서 공연을 보았던 정금형의 도전적인 퍼포먼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립무용단에서 열린 아카쉬 오데드라의

6.
후기

6—①
에바 마르티네즈
서울 무용계 관찰기[2015년 12월]

워크숍을 통해서는 무용 작업실을 엿보는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재능 있고 뛰어난 기술을 가진 무용수들이 새로운 형태의 무용에 눈을 뜨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에는 'Blue Poet D.T.'가 제작해 초연을 앞둔 'I'm so Tired'의 드레스 리허설에 초청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즈음에는 시차로 인한 피로와 빡빡한 일정으로 지쳐가고 있던 터라 제게 아주 잘 맞는 공연 제목이었죠!) 이 공연의 안무를 맡은 예효승 안무가는 벨기에 무용단인 'Les Ballets C de la B'에서 무용수로 활동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가 일했던 무용단의 무정부적이고 혼돈에 가까운 무용극 형식을 흥미로운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공연장에서는 기분 좋게 놀랄 만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작품의 음악을 '3호선 버터플라이'라는 유명한 인디 밴드가 맡았는데 (지하철 노선과 관련한 밴드 이름이라고 들었습니다), 마침 그날 라이브로 연주를 하고 있어 저를 수행하던 주한영국문화원의 직원분과 제가 깜짝 놀랐던 겁니다. 이 밴드의 노래는 이제 저의 스포티파이Spotify 음악 재생 리스트에 올려져 서울에서 보낸 시간을 떠올리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부드러운 한국어와 도시를 이끄는 에너지를 말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노래는 이 링크에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BGkRwUDKig

Kamsa Hamnida (감사합니다).

6—①
에바 마르티네즈
서울 무용계 관찰기[2015년 12월]

에바 마르티네즈 Eva Martinez
공연 예술 큐레이터이자 프로듀서, 컨설턴트인 에바 마르티네즈는 2013년 9월부터 무용 전문 제작 극장인 새들러스 웰스의 프로그램 담당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영국의 현대 무용 전문 예술 학교인 트리니티 라반Trinity Laban에서 재직했고, 이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노팅엄에 위치한 국립 무용 제작 기관인 댄스포Dance4의 예술 프로그램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댄스포에서 재직할 당시 무용계의 새로운 트렌드와 아티스트들을 소개하는 국제 무용 페스티벌인 낫댄스nottdance의 관객수를 두 배로 늘렸고,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런던의 사우스뱅크 센터South Bank Centre에서 예술 감독 주드 켈리Jude Kelly가 이끄는 무용 퍼포먼스 프로그램 기획팀으로 활동했습니다. 무용의 확장성과 실험성에 관심을 가진 에바는 2015년에는 테이트 모던과 함께 무용을 미술관이라는 공간에서 시각예술과 융합되는 Musée de la danse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에바 마르티네즈는 예술적 혁신, 아티스트 양성 그리고 커뮤니케이션과 언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술 기관의 커뮤니케이션, 브랜딩, 전략적 포지셔닝을 통한 부가 가치 창출에 주목하며, 드라마터그 및 조언자로서 현장에서 예술가와 협업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6–②
마크 브루
서울 방문 후기

한국의 다양한 무용 관련 기관 관계자와 사람들을 만나다

영국문화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협조로 마크 브루 컴퍼니Marc Brew Company의 프로듀서인 수잔Susan Hay과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초청받아 2015 한·영 무용 교류 프로그램 (UK-Korea Dance Exchange)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한·영 무용 교류 프로그램은 영국의 안무가 그리고 무용 프로듀서들이 일주일간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아티스트 및 예술 기관들과의 협업 기회를 탐색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본 프로그램은 2017년 2월에 출범하여 한국과 영국의 예술가들이 공동으로 작업한 결과를 공연, 상영, 아티스트 레지던시, 부대행사 등의 다양한 형태로 선보이게 될 'UK-Korea Season' 예술 프로젝트의 초석이 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프로듀서인 수잔과 저는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 머물렀고, 주한영국문화원이 마련한 탄탄한 프로그램 일정을 소화하며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서울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한국의 여러 아티스트들을 만났고,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공연예술제SPAF,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센터, 국립현대무용단, 국립발레단의 관계자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메인 프로그램으로는 24-25일 양일간 전문 무용수 및 안무가 대상 워크숍을, 27일에는 반나절 동안 장애인 대상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한·영 무용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많은 분들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뿌리깊은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인 한국 예술가들의 친절함, 그리고 본인의 예술적 경험과 지식을 외국인인 저와 거리낌없이 나누는 열린 태도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현대 무용 작품들과 작업 환경은 예술적인 측면에서 우수했고, 특히나 한국의 많은 분들이 장애인 예술에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겐 정말 가슴 뛰는 일이었습니다.

11월 24-25일에 진행되었던 전문 무용수 대상 워크숍의 마지막 세션에서, 우리는 함께 둘러 앉아서 이틀간의 워크숍을 정리하고 장애인 예술계가 나아갈 방향에 관한 생산적인 논의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애인 예술 분야에서 오랫동안 아티스트로 활동해 온 저와 기획자인 수잔은 장애인, 비장애인 무용수의 공동 작업 방식에 대해 많은 설명을 했고, 또한 몸으로 직접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지속해나가고, 비장애인 예술가들과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와 기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워크숍에 참가했던 한 무용수는 한국에서는 종종 장애인 예술과 비장애인 예술이 구분되며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뛰어넘는 공동 작업의 전례는 쉽게 접하기 힘들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틀 동안 장애인-비장애인 무용수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춤추고, 그들이 미래에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탐색하는 워크숍에서 저의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취수장을 개조하여 재탄생된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미팅을 위하여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를 방문했을 때, 기관의 시설들을 둘러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는 오래된 취수장을 개조하여 예술가들이 공연을 제작하고, 연습할 수 있는 스튜디오로 재탄생 되었고, 거리 예술과 서커스 공연 제작에 특화된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공장이었던 그 공간의 분위기를 마주하니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위치한 행위 예술 공연장인 트램웨이Tramway가 떠올랐습니다.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에서 느껴지는 창조적인 공기는 손에 잡힐 듯이 강렬했습니다. 곧 기관 내에 아티스트들의 레지던시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저 또한 'Nocturne'과 '(i)land' 라는 두 편의 야외 공연을 창작해본 적이 있기에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를 방문한 것은 고무적이었고, 즐거웠습니다.

장애인 예술가들을 위한 장애인문화예술센터

한국에서 일주일간의 여정이 끝나갈 무렵인 11월 27일, 서울 대학로에 새로 지어진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에서 장애인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음센터는 개방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고,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이지만 장애인 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센터이기에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센터 내부에는 무용 스튜디오, 작업실 그리고 제가 워크숍을 이끌었던 스튜디오 극장이 설비되어 있었습니다. 워크숍의 기획 단계부터 도움을 주셨던 안무가 노경애님의 작품과 제가 창작한 프로젝트의 동영상을 공유하는 세션, 그리고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Q&A 세션을 가졌고, 영국과 한국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워크숍이 마칠 시간을 지나고도 마무리가 어려웠을 만큼 열정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 음식, 서울 시내의 바쁘고, 활기찬 거리와 시민들, 지하철을 타보았던 경험 모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 2015 한·영 무용 교류 프로그램(UK-Korea Dance Exchange)을 계기로 한국과 영국간의 협업의 기회가 견고히 만들어지기를 고대합니다.

*

본 후기는 주한영국문화원 웹사이트에 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https://www.britishcouncil.kr/programmes/arts/performance-arts/mark-brew-workshop-review

7.
크레딧

주최 및 진행

주한영국문화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집 제작

편집 박재용
원고 양은혜, 박재용
교정 및 교열 최지혜
디자인 김은하

도움주신 분들

아르코 미술관 스페이스 필룩스, 서울무용센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센터, 월드컬쳐오픈(W스테이지), 포이어 프로덕션, 두리춤터, 국립현대무용단

발행일

2016년 2월 5일

본 자료집의 저작권은 주한영국문화원에 있습니다.

이 저작물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4.0 국제 라이선스가 적용 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의 설명을 보고 싶으시면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을(를) 참조하세요.